



“학교는 약속대로 분리내신 실시하라” 4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일부 학과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가칭 ‘내신평해학생 학부모 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학교는 약속대로 학과별 분리내신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공약 이행 평가 전국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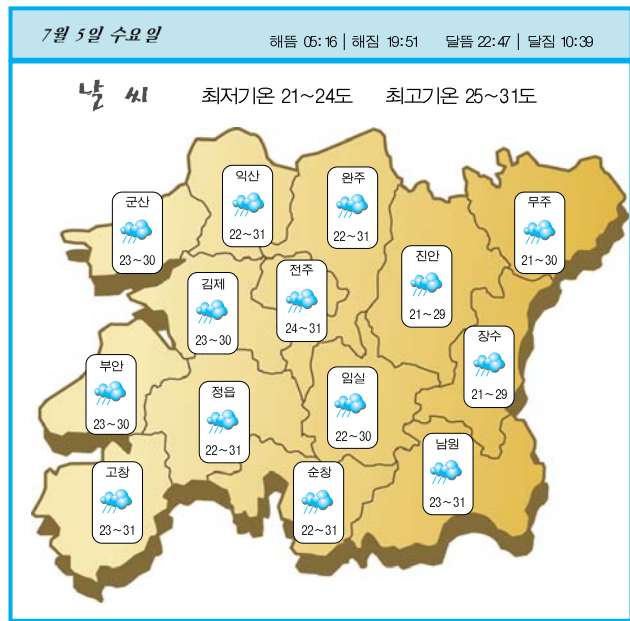
‘SA등급’ ... 안전한 학교 · 참된 학력신장 등 5대 분야 41개 사업

전북도교육청은 한국메트로폴리탄 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 이행원료 분야와 2016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신장 교육경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 등 5대 분야 41개 사업이다. 총 41개의 공약 중에 ▲원료 7개 ▲이행후 계속추진 26개 ▲정상추진 7개 ▲일부추진 1개이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7개 사업이다. 통학차량 지원 확대, 마을예술클럽 운영,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도서벽지 장기근무교사 별도선발 배치, 체험학습 관광벨트 조성 등 7개 사업이 완료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 민간이 참여하는 공약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공약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메트로폴리탄 본부가 1백80여 일간 진행했으며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원료, 2016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3대 분야에 세부 지표별 점 대평가로 이루어졌다.

웹소통과 공약일치도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메트로폴리탄본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 시도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중간 평가하고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민선 교육감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정해은 기자



자활사업 활성화 위한 종사자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4일과 5일 이틀간 경기도 일원에서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시가 후원하고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정보공유와 유대강화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활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하며 자활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고, 소사자활센터와 원미자활센터 등 우수 자활사업단 3개소를 견학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송예순 부천소사자활센터장이 강사로 초청돼 민간협력력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활기금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주시 사회정책제지원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기자

“학교교육 통해 지성·감성·시민성 발달된 새로운 학력관 모색해야”

도교육청, ‘새 학력·새정부 정책’ 포럼 개최

전라북도교육청이 4일 참학력포럼을 개최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학력과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4일 오후 2시 30분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번 참학력포럼에는 성열관 경희대 교수가 새로운 학력과 새정부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북교육청 최지훈 장학사가 전라북도 참학력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14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새로운 학력’ 공동연구를 이끌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미리 배부된 발표 자료를 통해 “경쟁과 차별 위주의 오래된 학력관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통해 지성, 감성, 시민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새로운 학력관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훈 도교육청 장학사도 “학력에 대한 고민을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한 전라북도가 이제 새정부 교육정책에 맞추어 우리지역에 알맞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통해 참학력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과 학교 문제해결능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김종표 전북일보 기자가 ‘참학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심인영 남원고 교사는 ‘새로운 학력관에 기초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교사의 견해’, 이복한 정읍 등신초 교사는 ‘참학력을 키우는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현진 춘향골 교육공동체 대표가 ‘학부모들이 바라는 참학력’ 등을 주제로 토론이 나설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 우이2동, 동네기획단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마련

전주시 덕진구 우이2동은 4일 동네기획단 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개정된 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우이2동 동네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외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적인 양식을 마련했다. 앞으로 우이2동 동네기획단 위원들은 관내 종교단체 및 동 자생단체들과 연계해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 대해 하반기에 책정된 동 복지허브화 사업비를 활용해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재용기자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예비 창업자 모집

최대 1천만원 지원·후속연계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사업단(단장 김대석)은 ‘창업아이템검증프로그램’ 예비 창업자들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 및 투자 연계, 성장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창업검증 프로그램으로 수료 후 최대 1천만원의 창업아이템 검증비 지원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총 30개 팀을 모집하여 필수과정을 진행하고 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멘토링과 교육을 지원하는 심

화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창업아이템검증프로그램 지원자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맞춤형 1:1 멘토링도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북대 R&BD전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 내려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iter35@j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노폴리스캠퍼스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창업보육 역량, 그리고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14살 소녀들

여는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이2동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